

研究論文

근대 초기 서양 수사학의 도입 과정 연구 - 『신미사학』(1902)의 분석을 중심으로 -

배 수 찬*

I. 머리말	V. 맺음말
II. ‘레토릭’의 의미 형성 과정	<참고문헌>
III. ‘레토릭’의 수입과 정착 과정	<국문요약>
IV. ‘레토릭’과 문체 관념의 변화	

I. 머리말

이 연구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 수사학의 도입 과정을 통해 오늘날 작문 내지 수사학과 관련된 용어들이 어떻게 성립하였는지 살펴보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 초기의 서양 수사학 도입 과정을 연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한국적 수사학의 수립에 그것이 미친 영향을 밝히는 것이겠으나, 필자는 이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다. 최근의 뛰어난 연구에서는 한국에 수사학이라는 용어가 도입된 애국계몽기 학술지를 검색하여 구체적 증거를 얻은 성과를 보여주었다.¹⁾ 그러나 기표의 일치가 실체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듯, 20세기 초반에 우리 문화에 맞는 말글의 발전이 바람직한 것이었는가, 또한 수사학이 그러한 말글의 이론으로서 제대로 기능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고전문학 및 작문교육 전공(begae@kice.re.kr).

1) 정우봉, 「연설과 토론을 통해 본 근대계몽기의 수사학」, 『고전문학연구』, 30집(2006), 440~441쪽.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수사학 도입이 이루어진 실제 양상에 대한 분석은 잠시 미루어 두고, 선행 연구에서 한국의 근대 초기 작문 이론이나 수사학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진 일본의 저술 『신미사학』(1902)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토대를 삼고자 한다. 『신미사학』의 저자인 시마무라 호게츠(1871~1918)는 일본 메이지 시대의 우수 평론가이며, 한학의 깊은 소양을 바탕으로 두고 서양의 문학 및 말글 일반에 대한 지식으로서 수사학을 소개한 인재이다.

흔히 20세기 이전의 글쓰기 전통이 한문에 기반하고 있고, 이것이 언문일치의 측면에서나 보통교육의 측면에서나 그 적합성을 인정받지 못해 소멸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근대어에서 한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국어 형태소가 서양의 개념어를 번역하는 데에 충분할 만큼 발달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어를 번역하는 데에도 한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마무라는 『신미사학』에서 희랍·라틴의 고전어들과 한문 용례를 종횡무진으로 인용하면서 근대 초기의 혼합문화적 지식 구조를 실증하고 있다.²⁾

한자의 필요는 단순히 재료의 수용이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문의 전통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 도입된 ‘레토릭(rhetoric)’을 번역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고전인 『주역(周易)』 건괘(乾卦) 문언전(文言傳)에 나오는 ‘修辭立其誠’이라는 어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수사로 그 정성됨을 세우고’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 구절의 ‘修辭’를 ‘레토릭’의 번역어에 해당시키는 것은 동양 고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사실 ‘수사(修辭)’라는 용어는 정립되기까지 상당한 곡절을 겪었는데, 이것은 그 말이 번역어로 성립하는 과정에서 ‘미사(美辭),’ ‘선론(善論),’ ‘능변(能辯)’ 등의 다른 용어들과 경쟁했다는 사실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³⁾

2) 시마무라는 시마네현 출신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15~6세경부터 약국의 점원, 재판소 급사 등의 일을 하면서 사숙에서 한문, 영어, 수학을 배웠다고 한다. 그의 비범함은 재판소의 검사에게 인정받아, 동경 유학이 실현되었다. 그는 동경물리학교, 일본영학원, 동경상업학교 등에서 영어, 수학, 이과를 배웠고, 1890년 동경전문학교(와세다의 전신) 정치과에 입학했다가 이듬해 문학과로 재입학했다. 졸업후 1908년에는 모교 문학과의 강사가 되어 미사학(수사학), 지나(중국)문학사, 서양미학사 등을 강의했다. 오늘날의 학문분과적 편제에 비추어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이력이다. 磯田光一(等編), 『新潮日本文學辭典』(東京: 新潮社, 1988), 623~624쪽 참조.

3) 일본의 연구자 스가야 히로미(菅谷広美)는 1871년 미즈쿠리 린쇼의 백과전서(百科全書) 『教導說』 凡例의 백과전서 篇名을 인용하여 ‘Rhetoric and Belles-lettres’라는 부분의 번역을 ‘선론학(善論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레토릭’의 번역어로 ‘수사(修辭)’라는 용어가 성립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 뒤, 그 한 결실로서 시마무라의 『신미사학』이 구사한 논리와 용어법을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날에 남긴 흔적을 밝히고자 한다. 19세기 영국 시민백과사전의 일종인 챔버즈의 저술에서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던 ‘Rhetoric and Belles-lettres’라는 항목이 19세기 말 일본에서 백과사전 번역의 일환으로 ‘修辭及華文’이라는 번역으로 책자화 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⁴⁾ 이후 츠보우치 쇼요(坪内逍遙),⁵⁾ 시마무라 호게츠 등 일본의 초기 근대 문학 이론가들이 『미사논고(美辭論稿)』(1893), 『신미사학(新美辭學)』(1902)⁶⁾ 등의 저술을 이룩하면서 ‘레토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기에 이른다.⁷⁾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근대 초기에 수입되기 시작한 서양식의 작문 개념으로 도입된 ‘레토릭=수사(修辭)’가 ‘화문(華文; 화려한 글쓰기)’ 내지는 ‘미사(美辭; 아름다운 단어나 말)’ 등 문학적 글쓰기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는 사실이다.⁸⁾ 이 점은 본론의 서술을 통해 밝혀지겠거니

學)이라 했다는 점, 그리고 ‘修辭及華文’을 권말 편명부에서 ‘修辭及美文’이라고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용어의 미정립 상태를 언급하고 있다. 菅谷広美, 『修辭及華文の研究』(東京: 教育出版センター, 1978), 27쪽.

- 4) 菅谷広美, 위의 책이 이 저술에 대한 총합적 연구이다.
- 5) 츠보우치 쇼요(1859-1935)는 일본 근대문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동경대학에서 최초의 영문학 학사를 취득하고 『소설신수』라는 근대소설에 대한 이론서를 남겨 그 명성을 확고히 하였다. 그는 동경대를 졸업한 뒤 유력 정치가인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갓 설립한 동경전문학교(와세다대학의 전신)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했고, 이때 와세다에 입학한 젊은 문학도 시마무라 호게츠를 지도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사제관계는 이후 제자인 시마무라가 스승인 츠보우치보다 먼저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되고, 시마무라는 츠보우치의 도움으로 와세다대학에서 교편을 잡게 된다. 磯田光一(等編), 앞의 책, 850쪽.
- 6) 본고에서는 島村瀧太郎, 『(縮刷)新美辭學』(東京: 早稻田大學, 1922)를 사용했다. 관련지를 보면 내용의 차이는 없이 쇄만 거듭했음을 알 수 있으며, ‘島村瀧太郎(시마무라 류타로)’는 ‘島村抱月(시마무라 호게츠)’의 본명이다. 磯田光一(等編), 위의 책, 623쪽 참조.
- 7) 아마도 정우봉이 지적한 1910년대의 <청년문고> 시리즈로 나온 수사학 관련 저술들(『서양수사학 변천의 경계』, 『수사학전후편』, 『웅변법요결』)은 일본 저술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이는 추정일 뿐으로, 앞으로 연구에서 확인하여야 할 과제이다. 정우봉, 앞의 논문, 441쪽.
- 8) 이는 근대 초기에 수사학을 도입했던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권보상은 「법학용어해」라는 글에서 과학을 구분하는 추상적 작업을 하는 도중 ‘수사학’을 정의하게 되는데, 그에 따르면 ‘修辭學은 思想發表의 目的을 達하기 爲하야 言語의 應用을 研究하는 者’라 하였다. 정우봉, 위의 논문, 431쪽에서 재인용.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수사학은 언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

와, 여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글쓰기가 문학적이고 기교적인 것에만 치우쳐지게 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오늘날의 작문 교육이 기능적인 측면을 주로 강조하고 내용학에 적대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조건 비판하고 있기만도 어렵다. 작문을 단순한 기능이나 문제 해결의 과업으로 파악하고, 행동의 규율 제시를 통해 규제·형태화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이 오늘날의 작문 이해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근대 작문은 그 이론의 형성 초기부터 문화적 격투를 통해 형성된 것이었으며, 오늘날의 작문이 처한 위기 상황은 인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내용의 실질화로서 극복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본고에서 그러한 문화적 격투의 일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레토릭’의 의미 형성 과정

1. 근대 ‘레토릭’의 형성 : 내용학의 이탈

‘레토릭(rhetoric)’이라는 용어는 본래 서양 그리스 시대에 ‘화술(話術)’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는 ‘화술’에 대비되는 ‘문술(文術)’을 포괄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레토릭’에는 기술, 즉 말을 잘 꾸며서 설득하는 것이 중점이었으며, 내용보다는 기술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는 오늘날 국어교육에서 내용 학습과 방법 학습을 구별하고 방법 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⁹⁾ 반면 동아시아에서 ‘레토릭’을 번역하는 데 사용된 ‘수사(修辭)’라는 용어는 앞서 말했듯 『주역(周易)』의 ‘修辭立其誠’에서 처음 나왔으며, 이후 ‘연자(練字)→성구(成句)→편장(篇章)’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었다. 즉 동아시아 전통에서 ‘수사(修辭)’는 단순히 ‘말을 꾸미는 것’만이 아니라 ‘말을 조직하는 것’을 모두 포함해서 말했다. 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는 뜻이다.

떠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응용’하거나 ‘비트는’ 과정 내지 방법에 대한 학문이라는 점이 암시되고 있다.

9) 내용 학습과 방법 학습의 차이, 전자에 대한 후자의 우위 주장에 대해서는 최현섭(외), 『국어교육 학개론(제2증보판)』(삼지원, 2005), 316~317쪽 참조.

그런데 19세기 이후 ‘rhetoric’이란 말이 서양에서 수입되어 오면서 이를 번역하기 위한 말이 필요해졌다. 서양 레토릭의 개념사를 잠시 살펴보면, 서양에서도 19세기에 이르르면 이미 ‘rhetoric’이라는 것이 고대 그리스 식의 ‘세련된 화술’을 뜻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글 잘 쓰는 방법’ 혹은 ‘좋은 글의 요건’을 밝히는 ‘학문’으로 전용되고 있다. 시마무라 호게츠의 논의를 바탕으로 서양의 레토릭 개념 변천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리스 시대 : 말 잘하는 것
- 로마 시대 : 진리를 말하는 것 (법학, 과학 등 학문들과 미분화)
- 중세 시대 : 레토릭의 전성기 (대학의 중심학문), 경전주석.
- 근세 이후 및 근대 : 분과 학문의 독립과 기술 중시 풍조, 글쓰기 기술(art)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레토릭. 화술(話術)에서 문술(文術)로, 능변(能辯)에서 능문(能文)으로.¹⁰⁾

위의 요약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 시대의 레토릭은 단순히 ‘말 잘하여 상대를 논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피스트들의 폐해가 극심해졌고, 법학·과학 등의 내용학이 발달하면서 내용으로서 ‘진리’에 대해서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중세는 성서 내용학을 바탕으로 레토릭이 전성기를 맞이하였는데, 이때의 레토릭은 인문 교양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개별 학문의 분화가 심화되면서 내용학들이 ‘레토릭’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레토릭은 내용을 상실한 채 ‘말하거나 글쓰는 방법 내지 기술(art)’에 대한 학문으로 축소되었다.¹¹⁾

즉 ‘rhetoric’이 동아시아에 수입되던 19세기에는 서양 내부에서도 ‘rhetoric’ 개념이 내용학에서 방법학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던(혹은 변화가 완결되는) 시기

10) 島村瀧太郎, 『(縮刷)新美辭學』(東京: 早稻田大學, 1922), 182~195쪽 참조.

11) 정우봉은 근대 이후 수사의 개념이 문자언어에 한정되지 않고 언어의 유창성 개념(음성언어)을 포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정우봉, 앞의 논문, 432쪽 참조. 수사학의 형식화 및 ‘내용 없는(혹은 내용을 경시하는)’ 수사학에 대한 인문주의적 비판은 설 땅을 잃었는데, 이는 근대의 수사학이 지닌 이중적 위치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한편으로 상대를 이기기 위한 토론과 웅변의 맹목성으로 실현되며, 다른 한편으로 인문주의적 고전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민주주의적 실용 지식으로 이해된다.

였다. 동아시아인들에게 이러한 ‘rhetoric’의 개념을 소개한 책은 앞서도 언급한 챔버즈 시민백과의 번역인 「수사급화문(修辭及華文)」(1879), 일본 최초의 근대 문예학자 츠보우치 쇼요의 제자이자 미학이론가인 시마무라 호게츠의 『신미사학(新美辭學)』(1902)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수사급화문(修辭及華文)」의 원문인 ‘Rhetoric and Belles-lettres’에서 ‘레토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레토릭(rhetoric)이란 음성·문자 언어 구조물에 대한, 그리고 언어가 인간의 정신에 가능한 한 위대한 영향을 산출할 수 있게끔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관한 지식과 관습**의 한 분과이다. 문법(grammar) 규칙이 개별 언어의 확립된 용례에 입각해 단어의 굴절 및 문장의 각 부분을 연결하는 데에서 **정확성과 규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사학은 언어 구조물의 의미와 외형, 그리고 그 언어가 전달되는 인간에게 미치는 총체적 영향을 고려한다.¹²⁾

즉 근대에 수입된 ‘rhetoric’은 문법을 넘어선 ‘고차원적인(혹은 고난도 기술의) 말하기 및 글쓰기의 기술’로 이해되었다. 근대에 서양에서 수입되는 말글과 관련된 주요한 학문으로 ‘문법학(文法學, grammar)’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정확성과 규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수사학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수사법’과 ‘문법’의 분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전통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¹³⁾ ‘문법(文法)’을 ‘정확성과 규율성에 알맞은 언어 사용 규칙’으로 정의하는 것은 우리(동아시아)의 전통에는 매우 낮은 것이었다.¹⁴⁾

12) 원문은 다음과 같다. ‘Rhetoric is a branch of knowledge and practice having reference to spoken and written compositions, and to the means of employing language so as to produce its greatest possible effect on the minds of men. While the rules of grammar are intended to secure correctness and uniformity in inflecting words, and in joining together the parts of speech in sentences,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usages of each separate language, Rhetoric considers the meaning and form of the composition, and the total effect upon the persons addressed.’ Chambers, William and Robert Chambers, *CHAMBERS'S INFORMATION FOR THE PEOPLE VOLUME II*(Philadelphia: J. B. LIPPINCOTT & CO. William and Robert Chambers, 1867), p. 737; 菅谷広美, 앞의 책, 466쪽의 자료면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하였다.

13) 이에 대해서는 배수찬,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 논설문 쓰기의 성립 환경과 문장 모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106쪽 참조.

14) 최재학 조차도 자신의 저술인 『실지용용작문법』에서 ‘文法’을 ‘운용의 방법’이라고 처리하고, 거

근대적 글쓰기의 장(場)에서, 이러한 고차원적인 레토릭의 차원에 들어맞는 글쓰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말을 잘 한다,’ ‘글을 잘 쓴다’고 했을 때에 떠오르는 차원은 어떤 것인가? 단순히 문법에 맞는 글이나 조리 있는 말만을 떠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문법적으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표현 기법이 풍부하고, 미적으로 뛰어난 말이나 글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하기와 글쓰기가 가장 압축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영역이 근대의 장 안에서는 이른바 ‘문학’의 영역이다. 이에 레토릭은 문학의 영역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마련함으로써 ‘내용학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 근대 레토릭과 문학의 결합 : 내용학 보완의 시도

알렉산더 베인(Alexander Bain; 1818~1903)은 초기 수사학 연구자들로부터 그 중요성이 언급되어 온 학자이다. 최재학의 『실지응용작문법』의 근원으로 밝혀진 『신미사학』(1902)이 다시금 원용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 소개된 그의 저술 『영작문과 레토릭(English Composition and Rhetoric)』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근대 레토릭과 문학을 결합시킨, 19세기 인문학의 기념비적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알렉산더 베인은 영국에서 태어나 도덕철학·윤리학 등을 전공하였고, 초기에는 칸트철학 등 관념론적 정신과학의 영향을 받아 『감각과 지성(The sense and the Intellect)』(1855), 『감성과 의지(The Emotion and the Will)』(1859) 등의 심리학적 저술을 남겼다.¹⁵⁾ 수사학과 얼핏 관련 없어 보이는 이러한 초기의 연구는 이후에 그의 수사학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근대 이후에는 각종 분업화한 내용학이 발달하면서 레토릭이 주요 학문의 자리를 빼앗기고 내용학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는다. 이에 레토릭은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방법에 대한 학문, 즉 ‘방법학’을 표방할 수도 있었다.¹⁶⁾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메타학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듯하여, 레

기에 아이디어의 변형과 관련된 각종 수사법을 대응시켰다. 근대적 문법 개념은 『실지응용작문법』이 나온 1909년에도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재학, 『實地應用作文法』(京城: 徽文館, 1909), 8쪽 참조. 문법과 수사법의 대립적 관계에 대해서는 배수찬, 위의 논문, 91~100쪽 참조.
 15) 베인의 약력에 대해서는 菅谷広美, 앞의 책, 414쪽에 있는 「ベインとその略歴」 항목을 참조.
 16) 오늘날 국어교육학계에서 내용에 대한 학습을 금기시하거나 방법학습과 변별하고자 하는 태도가 이

토릭은 ‘잘된 말’이나 ‘잘된 글’의 실체를 찾아 새로운 내용학을 선취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이른바 ‘문학’이라고 하는, 19세기 이후에 새롭게 부각된 ‘뛰어난 재주를 지닌 글’이라는 의미의 ‘리터러치(literature)’ 개념과 연합하여¹⁷⁾ 잃어버린 내용학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즉 인문주의적 내용학은 없어진 대신, 말하기나 글쓰기의 ‘방법/기교’ 자체로 하나의 학문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학 이론이나 작문 이론은 모두 19세기 이후에 그 기초가 형성된 것이다. 서정/서사/극 등의 분류는 인간의 말하기 행위 양상에 따른 것이며, 설명/주장 등의 분화도 마찬가지이다. 행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개인적 삶의 의욕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어떠한 문화적 관습이나 내용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내용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학문적인 뒷받침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 행위 자체는 학문이 아니지만 인간 행위에 대한 학문적인 설명 방식은 존재 가능하고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심리학’인데, 근대의 과학적 심리학은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¹⁸⁾

인간의 행위는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겠으나 그 작용의 영역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고, 각 지점은 행위의 정신적 근거를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알렉산더 베인은 인간 행위의 근거인 정신을 연구한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내용학을 상실한 레토릭의 영역에 언어의 사용 목적,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기능’과 그 작용의 영역을 밝혀 레토릭을 성립시켰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수사법 내지 수사학으로 수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먼저 베인은 자신의 연구 첫머리에서 ‘레토릭

리한 자세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용주, 『국어교육의 반성과 개혁』(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30-33쪽. 국어교육은 언어교육이고 언어교육이어야 한다는 말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언어’라는 것의 범위와 한계를 고려할 때 그 의미의 편폭이 변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17) 서양에서는 ‘레토릭’의 개념이 변하듯이 ‘리터러치’ 개념도 변화를 겪는다. 본래 ‘literature’는 17세기만 하더라도, ‘博學, 博識’ 정도의 의미로서 뉴턴의 과학서나 로크의 철학서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18세기 이후 로맨티시즘(浪漫主義)의 대두로 인해 상상력, 독창성, 세련 등이 강조되고, 많은 리터러치 중에서 내용(사상, 역사, 일반적 주제)이 아닌 쓰여진 방식(예술성: 독창성, 상상력, 세련됨)에 비추어 우수한 것을 ‘문학’이라는 카테고리에 집어넣기 시작하였다. 鈴木貞美(저)/김채수(역), 『일본의 문학개념』(보고사, 2001), 71~74쪽 참조.

18) 이러한 주장이 극단화된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이다. 미국의 유명한 행동주의 심리학자 왓슨은 “심리학은 행동과학이지 정신과학이 아니다”는 놀라운 주장을 폈다. 이는 사실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것들만 심리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편벽되고 야만적인 태도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과이다.

은 음성언어나 문자언어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단을 연구한다'19)고 그 존재 근거를 밝혔다.

그는 언어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했는데, 이것은 이른바 심리학적 정초(定礎)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언어는 그 목적에 따라 '설명하기(to inform),' '설득하기(to persuade),' '즐겁게 하기(to please)'의 셋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작용의 영역을 각각 '지(the Understanding, 知),' '의(the Will, 意),' '정(the Feeling, 情)'으로 규정하였다.20) 조동일은 이광수가 초기 문학론에서 전통적인 성정론(性情論)을 저버리고 지정의(知情意)에 입각한 논의를 폈다고 비판했는데,21) 그러한 지정의론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22)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알렉산더 베인의 '레토릭' 영역 분류

	영역 I	영역 II	영역 III
언어사용목적	to inform(설명하기)	to persuade(설득하기)	to please(쾌락)
작용영역	지(知)	의(意)	정(情)

알렉산더 베인은 레토릭의 영역을 <표 1>과 같이 나누어 일종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교육과정에게까지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설득을 위한

19) 'Rhetoric discusses the means whereby language, spoken or written, may be rendered effective.' Bain, Alexander, *English composition and rhetoric: a manual*(London: s.n., 1877), p. 1. 이를 각주 8)의 권보상의 견해와 비교해 보라. 놀랄 만한 유사성이 발견되는데, 이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19세기 이후 지적 구조의 전체 발달과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다.

20) '말하기에는 세 가지 주요 목적이 있다—설명하기, 설득하기, 즐겁게 하기. 이 세 가지 목적은 이해(知), 의지(意), 감정(情)이라는 인간 정신의 세 가지 부문에 각각 상응한다. 각각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은 조금씩 다르고, 각각의 목적은 분리된 항목으로 간주된다(In speaking there are three principal ends,-to inform, to persuade, to please. They correspond to the three departments of the human mind, the Understanding, the Will, and the Feelings. The means being to some extent different for each, they are considered under separate heads)' Alexander Bain, *ibid*, p. 1.

21) 조동일, 『이광수』, 『한국문학사상사시론』(지식산업사, 1978), 333쪽 참조.

22) 이광수는 1915~1918년 와세다대학에 유학했으며, 앞서 지적했듯이 시마무라 호게츠 본인이 와세다대학 문학과 출신이다. 그는 츠보우치 쇼요의 수제자로서 1894년 학부를 졸업한 이후부터 『와세다문학』의 편집에 종사하며 저술을 했으므로 와세다의 인문학에 일대 유명 인사였으며, 이광수는 시마무라의 『신미사학』과 유사한 논의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한길사, 1986), 1152~1153쪽 참조.

글쓰기/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로 계승되고 있다.²³⁾ 베인은 이러한 기본 시각에서 문체(style in general)와 작문종(kinds of composition)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전자는 오늘날의 문체론으로, 후자는 오늘날의 작문 이론 내지 수사론으로 계승되고 있다. 즉 베인은 근대 레토릭이 문체론과 작문론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체론은 본고의 영역을 벗어나므로 잠시 제외하고 본다면, 문장을 '묘사(description),' '서사(narrative),' '설명(exposition),' '설득(persuasion),' '시(poetry)'로 분류한 작문종에 대한 베인의 이론은 오늘날 '진술 방식'이라는 국어교육 내용으로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의 견고함은 개별자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거기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심리학의 안정성에 상응한다. 조동일의 설명대로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에는 인간이 언어사용의 목적을 셋으로 분류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따위의 사고방식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상, 그것은 새로운 존재의 정당화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정(情)의 글쓰기가 문학을 내용 원천으로 삼아 성립하고 이론으로서의 수사학을 구축했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III. '레토릭'의 수입과 정착 과정

앞서 베인은 근대 레토릭이 문체론과 작문론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베인의 이론은 근대 동아시아에도 수용되었으며, 이것은 글쓰기에 대한 20세기 초의 서양식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동아시아의 근대 작문과 문학 환경을 형성하고 쓰기의 실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베인의 저술은 번역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이를 알기 쉽게 풀이한 새로운 서양식 레토릭 교재가 동아시아인의 손으로 씌어질 필요가 있었다. 시마무라 호게츠의 『신미사학』(1902)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서 나온 저술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신미사학』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서양의 방법학으로서

23)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②국어』(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226쪽 참조.

19세기 말에 새롭게 성립한 ‘레토릭’이 동아시아에 정착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레토릭’의 두 번역 : ‘미사(美辭)’에서 ‘수사(修辭)’로

‘신미사학(新美辭學)’이라는 저술은 그 제목부터가 생소한데, 그러한 제목이 나오게 된 사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양과 인문적 교류를 하던 19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극히 소수였고, 필연적으로 선구자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레토릭이라는 학문은 당대의 주류 학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루는 이가 더욱 적었다. 그러나 초기 일본의 서양문학 연구자들은 19세기 후반에 성립한 새로운 서구의 레토릭 개념을 인지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새로운 작문 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도 직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레토릭’을 수입해 와야 했는데, 당장 그것을 어떤 한자어로 번역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레토릭은 베인의 표현대로 하자면 ‘효율적이고 잘 말하는 방법’이다. 그것을 결과로 놓고 말한다면 ‘잘된 말이나 글’일 것이다. 이 때문에 초기의 ‘레토릭’ 번역은 ‘잘 논의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선론(善論)’이나 ‘변론을 잘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능변(能辯)’이기도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추상의 정도가 낮아 학술적인 용어로는 정립되기 어려운 상태였고, 문자 언어를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가 ‘미사(美辭)’와 ‘수사(修辭)’였는데,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신미사학』의 다음 구절이다.

미사학(美辭學) 또는 수사학(修辭學)이라고도 한다. 사(辭)를 수식하여 아름답게 하는 이치(理)를 밝히는 것으로 즉 일개의 문장에 대한 학(學)이다. 즉 문장은 일종의 미술(美術)인 것이다. 대체로 미사학(美辭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직 완전히 성숙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세간에는 그 의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고, 특히 미학, 어법학 등이라고 칭하는 것들과의 관계에 이르러서는 극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본서의 계획은 미사학(美辭學)에 의해 문장상에 나타난 미를 연구하고, 그것을 미학의 계통으로 귀납시키는 데 있다.

‘미사학(美辭學)’이라는 것은 영어의 ‘레토릭(rhetoric)’이라고 하는 것의 의역이다. …위(魏)의 조식(曹植)이 『辯道論』에서 ‘따뜻한 안색으로 이끌고, 아름다운 말로써 인도한다(溫顔以誘之, 美辭以導之)’라 한 데에 그 뜻이 잘 맞는다. …‘수사(修辭)’라 하는 말은 『역(易)』의 건괘 문언의 조에 ‘군자는 진덕 수업하고, 충신은 진덕의 길이다. 말을 닦아 그 성실함을 세움은 업적을 이루는 힘이다(君子進德修業, 忠信所以進德也.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라고 한 이래로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정의를 하는 것의 편의와 정확도 등을 생각하여 잠정적으로 미사학(美辭學)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²⁴⁾

위 인용문은 1902년의 동아시아에서 서양의 레토릭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여 적용하려 하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질게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마무라는 ‘문장은 일종의 미술’이라는 명제에서 연역적으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 근대의 형성기라 볼 수 있는 18세기부터 낭만주의가 발달하면서 내용이 아닌 씌어진 방식에 입각해 글을 분류하는 방식이 생겼고, 그것이 ‘문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했다는 사실은 이제 문학사의 상식이 되었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이 시기 독일 관념론에서 기원한 미학(美學)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었고, 이는 심리학을 바탕으로 작문을 재편하고자 한 베인의 사상에도 그 영향을 끼쳤다. 이는 앞에서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근대적 서양의 말글이론인 ‘레토릭’은 따라서 ‘말과 글이 씌어지는 방식’ 가운데서도 미에 주목하게 된다. 서양인들은 ‘레토릭’이라는 용어가 있어 ‘아름답게 말하고 글쓰는 기술’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는 점은 이제 분명해졌다. 그러나 레토릭을 곧바로 동아시아의 어휘 체계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일이므로 그 용어에 대한

24) 원문은 다음과 같다. “美辭學また修辭學とも稱す。辭を修飾して美ならしむる理を説くもの即ち一個の文章學なり。而して文章は一面の美術なり。蓋し美辭學といふ名は未だ全く熟したる者に非ず。随つて世上なほ其の意義を疑ふ者あるべく殊に美学 語法學など稱する者との關係に至りては極めて明かならざるものあるべし。…本書の計畫は 美辭學によりて文章の上にはあらはれた美を研究し 以て之れを美学の系統に納めんとするにあり。美辭學とは 英語にレトリック(Rhetoric)といへるを意識せるなり。…魏の曹植が『辯道論』に‘溫顔以誘之, 美辭以導之’などいへる ‘よく其の意にかなへり。…修辭といへる語は 『易』の乾卦, 文言の條に‘君子進德修業, 忠信所以進德也.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とあるを始めとし支那にても早くより熟して用いられ …本書は 定義を立つる上の便宜と精確とより打算して ‘しばらく美辭學の名を襲用せり.’ 島村瀧太郎, 앞의 책, 1~3쪽.

번역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시마무라가 제시한 상응어가 이른바 ‘미사(美辭)’였던 것이다. 레토릭은 음성언어나 문자언어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단의 연구이며, 그 목표가 ‘잘 된(善),’ ‘아름다운(美)’ 말글이라고 할 때 ‘레토릭’을 ‘미사학(美辭學)’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어감에서 볼 때 ‘미사(美辭)’보다는 ‘수사(修辭)’가 훨씬 생명력이 길었고 말글의 기교를 다루는 레토릭이라는 영역의 특성상 말의 느낌에도 ‘수사’가 더 적합하게 여겨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사(美辭)’는 예술 내지 문학과 연관되는 느낌이 지나치게 강하여 미학 내지는 예술학의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쓰기 이론이 되기에는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美)’가 정적인 실체 개념인 데 비해서 ‘수(修)’는 ‘갈고 닦는 다’는 행위 개념이므로 활동 중심의 말하기나 쓰기 이론에 적합한 점도 들 수 있다. 실제로 『신미사학』의 목차를 살펴보면 그러한 방향이 이미 예견되고 있다.

<표 2> 『신미사학』의 목차 구성

1. 서론(序論)
1.1. 미사학(美辭學)의 명칭
1.2. 미사학(美辭學)이란 무엇인가
1.3. 미사학(美辭學)의 변천
2. 수사론(修辭論)
2.1. 수사론(修辭論)의 조직
2.2. 사조론(詞藻論)
2.3. 문체론(文體論)
3. 미론(美論)
3.1. 미론(美論)의 계획
3.2. 정(情)의 활동과 쾌락
3.3. 쾌락과 미(美)
3.4. 미(美)의 철리적 방면

<표 2>는 『신미사학』의 전체 목차 구성이다. 2장 ‘수사론’은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시마무라는 1장에서 레토릭(미사/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辭)’의 개념을 서구적 개념인 ‘언

어(言語)’에 입각해서 자세히 설명한 뒤, 2장에서는 ‘언어(辭)의 미술’인 ‘레토릭’을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는 문장을 하나의 미술로 본다고 했다. 무릇 미술 연구는…소재와 기교로 나누어진다. 소재라는 것은 미술이 되는 내용의 사상이고, 기교라는 것은 이 내용을 구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문장은 수사 방법을 가지고 이 과정에 상당하는 것이다. **수사론이라는 것은 즉 문장이라고 하는 미술의 기교 방면을 연구하는 것이다.**²⁵⁾

위 인용문에 따르면 용어법상 시마무라가 고민한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다. 시마무라는 미사학의 성립 근거를 ‘문장이 미술의 일종이어야 한다’는 데서 찾았다. 물론 미술은 일종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교로서, 레토릭 개념의 수입과 관련해서 부각된 개념이므로 조형 예술에만 한정시켜서 볼 것이 아니다.²⁶⁾ 어쨌거나 시마무라는 그에 입각해서 문장의 미술을 연구하는데, 특히 소재보다도 기교의 차원을 중시하고 있다. 미술이 소재와 기교로 나누어진다고 했을 때, 문장은 기교 과정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의 연구는 문장의 기교 연구이며, 이것이 이른바 수사론(修辭論)인 것이다.

시마무라가 여기에서 ‘미사론(美辭論)’이라 하지 않고 ‘수사론(修辭論)’이라고 한 것은 이미 용어법상 ‘미사(美辭)’에 대한 ‘수사(修辭)’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다.²⁷⁾ 『신미사학』 이후 ‘미사학(美辭學)’이라는 용어를 계승한 저술은 많지 않으며, 『신미사학』의 2장 자체가 독립된 ‘수사론(修辭論)’에 관한 저술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미(美) 자체는 실체이지만 글쓰기는 미술이 아니라 글을 ‘아름답게

25) “吾人は文章を一の美術と見るものなり。夫れ美術の研究は…素材と技巧とを分かつことなり。素材とは美術となれる内容の思想にして 技巧とは此の内容を具現せしむるの過程なり。而して文章にありては修辭方法を以て此の過程に相当するものとす。修辭論はすなはち文章といふ美術の技巧の方面を研究するものなり。” 島村瀧太郎, 위의 책, 201쪽.

26) 도입 초기에 ‘美術’이라는 기표가 지시한 관념은 예술 일반이었다. 현대시인 정지용은 자신의 산문에서 ‘언어미술이 존속하는 이상 그 민족은 열렬하리라’고 했는데, 이때의 ‘언어미술’이란 다름 아닌 ‘시’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민음사, 1995), 78쪽 참조.

27) 물론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메이지 시대의 작문 내지 문예에 관한 이론적 저술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뒤에야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美) 하는 과정이므로, 실체 중심의 ‘미사(美辭)’보다 행위 중심의 ‘수사(修辭)’가 용어로서는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이후 시마무라는 2장 2절의 사조론(詞藻論)에서 문장 꾸밈과 관련된 기교 차원의 수사 현상들을 제시하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 국어교육에서 상식으로 다루고 있는(그러나 아무도 그 근원을 이야기하지 않는) 비유법과 문장 수사법의 근원이다.

2. 수사론의 내용 구성 : 비유 · 화성 · 포치 · 표출

시마무라는 『신미사학』 2장 2절의 사조론(詞藻論)에서 비유 · 화성 · 포치 · 표출의 네 가지 수사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사조(詞藻)’란 상당히 고풍스런 말로서, 흔히 고전 한문에서 ‘말의 빛깔이나 시문의 재주’를 가리키는 말이었다.²⁸⁾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꾸밈’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시마무라의 논리에 따르면 ‘사조(詞藻)’는 다시 ‘어채(語彩)’와 ‘상채(想彩)’로 나누어진다. ‘어채’는 언어 자체의 외적 꾸밈으로서 외형적이며,²⁹⁾ ‘상채’는 어느 언어에나 공통적인 생각의 꾸밈이다. 시마무라는 다시 꾸밈을 ‘소극’과 ‘적극’으로 나누는데, ‘소극’이란 말이 소극이지 실제로는 꾸미지 않고 명석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할 뿐이다. 수사 현상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극적인 꾸밈이며, 그 중에서도 어채(語彩)보다 상채(想彩)가 보편적 수사론의 주요 내용이 된다. 어채는 언어마다 독특한 특질을 지니고 있어 보편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마무라가 제시하는 적극적 상채, 즉 생각의 적극적 꾸밈의 하위 영역은 다음과 같다. 이는 오늘날 국어교육에서 흔히 문학적 글쓰기를 교육할 때 비유법과 문장 수사법이라 하여 (아무도 그 기표의 근원은 묻지 않은 채) 널리 교육되고 있는

28)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卷十』(東京: 大修館書店, 1985), 435쪽 참조.

29) 이는 로만 야콥슨이 말하는 언어의 여섯 가지 기능 가운데 시적 기능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는 언어의 물질성을 강조하며, 번역불가능성 내지 기표 자체의 울림을 활용한다. 도구로서 언어관의 정반대에 놓여 있는 언어관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외국어와 모국어의 관계 문제를 부각시킨다. 로만 야콥슨/신문수(역), 『문학 속의 언어학』(문학과지성사, 1989), 58~60쪽. 그러나 교양의 기반을 한학에만 두고 있고 서구적 지식을 직접 습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 최재학은 아직 여기까지 자신의 문제의식을 확대시킬 수 없었다. 최재학의 학력에 대해서는 최근의 연구로서 정우봉, 「근대계몽기 작문 교재에 대한 연구: 실지응용작문법과 문장지남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28호(2007), 154~161쪽 참조.

것들이다. 이 지식 내용들의 근원이 시마무라의 『신미사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 둔다.

- 비유법(比喩法) [상념의 동일성] : 직유, 은유, 환유, 제유, 풍유, 인유, 성유 등
- 화성법(化成法) [상념의 변형] : 의인, 돈호, 현재, 과장 등
- 포치법(布置法) [상념의 조직] : 대우, 점층, 반복, 도장, 조응, 굴절, 역양 등
- 표출법(表出法) [상념의 태도] : 경구, 문답, 설의, 영탄, 반어, 곡언, 상략 등³⁰⁾

시마무라의 설명에 따르면 위 사항들, 그러니까 생각의 꾸밈이 수사론의 본령이다. 시마무라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분류한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인 것이다. 생각의 꾸밈이야말로 문장이라는 사유 전달의 매체가 밋밋해지지 않고 기교적이고 효과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지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국어교육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들은 아직까지도 문학교육의 영역인지 작문교육의 영역인지 불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국어교사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교육되고 있을 뿐 문학교육과정 내지 작문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³¹⁾

앞으로 국어교육 연구의 과제는 이러한 생각의 꾸밈을 위계화하고, 교육 자료로 재배치하는 데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생각의 꾸밈뿐만 아니라 언어 외형의 꾸밈에 이르기까지 위계성 있는 교육 내용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교육은 개별적인 지식으로만 학습되었을 뿐 언어 기능교육의 일환으로 구체화되어 시도된 바 없다. 쓰기를 비롯한 기능교육의 내용이 내실화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며, 각각의 사항이 교육 내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시마무라는 ‘적극적 상채 즉 상념의 이상적 발전의 방식을 넷으로 나눌 수 있다’³²⁾고 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비유법은 ‘상념이 발전하는 데에서 필요한

30) 島村瀧太郎, 앞의 책, 317~465쪽 참조. 이재선은 이 문제를 최재학의 『실지응용작문법』과 연관성 속에서 상당히 다루었다. 이재선, 「개화기의 수사론: 그 이론형성과정의 영향권」, 『한국근대문학연구』(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9), 18~19쪽 참조. 그러나 시마무라가 최재학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시마무라의 논의를 전체 맥락에서 살펴본 것은 본고만의 특성이다.

31) 시마무라는 비유법이 문학의 영역인지 작문의 영역인지 고민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문장 쓰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개하였을 따름이다.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영역론의 갈등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이러한 시마무라의 유연한 사고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한 동일한 정취를 지닌 새로운 상념을 부가하는 것(동일성의 부가)³³⁾이며, 화성법은 ‘상념의 변형에 의해서 그 이상적 발전을 이룩하는 용법(변형)’³⁴⁾이고, 포치법은 ‘상념의 조직에 의해 그것을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것(조직)’³⁵⁾고, 표출법은 ‘상념을 표출하는 태도에 기반한 것(태도)’³⁶⁾이라 하였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지만, 글쓰기의 요소를 언어와 생각으로 나누고, 생각의 요소들을 꾸미는 방법을 동일성, 변형, 조직, 태도에 입각해 분류한 지식은 작문 교육 내용으로 삼기에 손색이 없다고 여겨진다.

시마무라의 영향을 받은 최재학은 『실지응용작문법』에서 상채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과 사례 제시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최재학은 ‘상채(想彩)’라는 용어가 못내 어색했던지 ‘문법(文法)’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수사 기교를 가리키는 말로 대응시켰다. ‘文法’을 ‘글쓰는 재주나 기법’으로 이해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으나, 이미 근대 이후에 ‘문법’은 언어의 정확성과 규범성을 나타내는 규율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최재학의 용어 선택은 지극히 부적절했다. 이는 달리 말해 최재학의 관심이 그만큼 편협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의 저술이 그 중요성에 비해 완성도도 낮고 후대에 미치는 영향력도 현저히 약화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여진다.³⁷⁾

32) ‘積極的想彩すなはち想念の理想的發展の方式を四つに分かつこと.’ 島村瀧太郎, 위의 책, 317쪽.
 33) ‘想念が斯くの如き發展をなすにあたり 必要なる限り同一情趣の下に新想念を付加し來たる.’ 위의 책, 317쪽.
 34) ‘念の變形によりて其が理想的發展を遂ぐるの用をなす.’ 위의 책, 321쪽.
 35) ‘想念の組み合はせによりて之れを結體せしめんとす.’ 위의 책, 321쪽.
 36) ‘想念表出の態度に基づくもの.’ 위의 책, 321쪽.
 37)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지응용작문법』은 전통적인 한문 수사학과 문장학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일본 및 서구 수사학의 최신 성과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는 객관적 기술의 외피를 쓴 과도한 미화로 보인다. 정우봉, 앞의 논문(2007), 172쪽. 최재학의 절충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 곳에서 이론을 끌어 왔다는 것이 주체성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최재학은 근대적 언어 이해의 핵심인 ‘기표/기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마무라가 제안한 ‘어채상채’의 개념 구별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기표의 우위와 말 중심성을 전면에 내세우기만 했을 뿐, 전통과 완전히 단절된 『문장강화』 류의 저술만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국한문체를 포함한 한문 계열 글쓰기가 서구의 충격에 주체적으로 변모하지 못한 결과이다.

IV. '레토릭'과 문체 관념의 변화

마지막으로 서구의 '레토릭' 개념이 '문체(文體)' 개념을 변화시킨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체란 전통적 글쓰기 관습에서는 한문학의 문장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서구적 글쓰기 관념이 도입되면서 글이 '개인적 작가의 행위의 소산'이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그것을 분절화·항목화한 내용들이 '레토릭'이라는 지식을 구성하게 되면서, '문체'의 개념도 '작가의 풍격을 나타내는 것'³⁸⁾으로 의미가 변화되었다. 시마무라는 『신미사학』에서 주관적 문체와 객관적 문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객관적 문체는 사실상 문장 분류에 가까우므로 여기서는 근대적 문체 개념인 '주관적 문체'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마무라의 주관적 문체 가운데 외형에서 본 문체가 오늘날 국어교육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주관적 문체는 '작가의 풍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외형에서 본 문체는 '작가가 풍격을 발하여 외형으로 나타난 것을 체로 삼은 것'³⁹⁾으로, 간결체나 만연체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한다. 글쓰기가 개인의 행위 중심 시각으로 전환되고 수사학의 기교도 성립되었지만, 글이란 것은 세부적인 기법으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가 지닌 특성 내지 느낌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근대적 레토릭 하에서의 '문체' 개념인 것이다.

시마무라는 간결체(簡潔體)와 만연체(蔓衍體), 강건체(剛健體)와 우유체(優柔體), 건조체(乾燥體)와 화려체(華麗體)에 대해 각각의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국어교육에서 문체론을 설명할 때 주요한 개념으로 (그러나 역시 원천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함께)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물론 이것도 실제 작문 교육에 활용되기보다는 글의 독해 과정에서 글을 분석하는 지식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쓰기를 바라보는 역사적·문화적 시각의 결여는 오늘날 거의 극점에 다다랐다고도 볼 수 있을 듯하다. 글쓰기는 더 이상 문화의 축적이나 자연의 발현, 인격의 외현 같은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⁴⁰⁾

38) '作家の風格を表すものなり.' 島村瀧太郎, 앞의 책, 466쪽.

39) '作家が風格發して外形となれるものを數へて體とするなり.' 위의 책, 466쪽.

40) 문체해결 전략으로서 글쓰기를 바라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시각의 대표적 이론가인 플라위에 따르면 "작문과정을 사고과정으로 본다면, 우리는 쉽게 작문과정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행계획 세우기, 시험보기, 결정하기, 요청하기 등과 같은 문체해결 과정과 여러

오늘날 기능 위주의 작문교육은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의 발전, 문제 해결이라는 실용적 필요에 대한 관심의 증대,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문적 문화 수준 저하가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⁴¹⁾ 기능 위주의 작문 교육과정은 구체적으로 넣을 수 있는 내용학적 요소들까지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작문 내지 작문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피천득의 수필은 우유체이다’는 식의 교육이 암기적이고 무의미했다 하여 오늘날은 실용문 쓰기로 내달리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인문적 지식이 아니라 인문적 지식이 잘못 가르쳐진 데에 있는 것이다.⁴²⁾

인문적 지식을 재구조화하고 교육 내용화한다면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수사론, 문체론은 작문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체계화된 지식이며, 절차화하여 교육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수사론의 경우에는 언어의 꾸밈과 의미의 꾸밈, 어체와 상채, 기표와 기의의 세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위해 인문적 지식이 활용될 수 있다. 인문적 지식을 활용한 글쓰기는 더 이상 기능학과 내용학의 갈등이 필요 없는 바람직한 국면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입각하여 새로운 작문 이론과 수사학이 발달할 것임은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다.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한다. 린다 플라워/원진숙·황정현(역), 『글쓰기의 문제해결 전략』(동문선, 1998), 23쪽. 물론 이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글쓰기는 사고의 측면과 동시에 축적된 문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점은 타협 불가능한 글쓰기의 2대 구성 요소이다. 설명하고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글쓰기를 유추하는 린다 플라워의 태도는 확실히 행동주의적(왓슨, 스키너)이고 실용주의적(윌리엄 제임스, 존 듀이)이라는 점에서 미국적이다.

- 41) 물론 문제해결 전략이라는 개념이 그 자체로 유용한 실제적 국면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해결적 방법으로 글쓰기에 접근하게 되면, ①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② 쓰기 과정에 대한 기술이 가능해진다. 린다 플라워/원진숙·황정현(역), 위의 책, 22~26쪽. 그러나 전략과 원리 중심으로 쓸 수 있는 글과, 그렇지 않은 글들이 있다. 문제해결 전략 중심의 글쓰기는 어떠한 가치나 목표를 정해 주지 않고 주어진 상황 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착하게 하는데, 이는 내용학과 방법학의 불행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 42) 미국식 행동주의 풍토에서는 인문적 지식이 계측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부정하기 쉽고, 행동주의가 아니더라도 프래그머티즘적 사유 자체가 가치의 근원을 성찰하는 인문적 태도에 적대적이다. 문제해결 중심의 글쓰기 이론도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이론 가운데 목표모형과 깊은 관계가 있다. 목표모형과 그 대안으로서 내용모형에 대해서는 이흥우, 『중보 교육과정탐구』(박영사, 1992), 42~96쪽.

V. 결론

본 연구는 근대 초기에 서구적 말글이론인 ‘레토릭’이 한문문화권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작문 이론의 바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근대의 ‘레토릭’ 개념은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기교를 강조하는 지식 체계로서, 근대적 지식의 분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것이 기교적 글쓰기를 가리키는 근대의 문학 담론과 결합하여 내용학을 보완하였고,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 근대 과학으로 새롭게 등장한 심리학에 의지하여 학문적으로 정초되었다.

이러한 레토릭이 한문문화권에 수입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시마무라 호게츠의 『新美辭學』(1902)이었다. ‘신미사학’은 문장의 미적 요소를 밝히는 데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것이 근대적 레토릭의 내용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레토릭은 ‘수사론(修辭論)’ 내지 ‘수사학(修辭學)’이라는 기표 위에 정착되어 갔으며, 이때 형성된 수사론적 지식은 오늘날 국문학과 국어교육의 개념적 지식으로서 널리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것은 개인적 행위로서 글쓰기에 대한 미적·효율적 자질 분석으로서 문학적 지식의 이해와 교육 단위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미사학』의 경우 비유법과 수사 기교들이 ‘아이디어의 꾸밈(想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고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쓰기 교육이 문제해결 전략 등의 기능 학습으로 공소화하는 것을 시정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유의미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비유법과 수사 기교는 문학만의 영역도 아니고 쓰기 교육의 전유물도 아니다. 그것은 인문적으로 쌓여 온 전통임과 동시에 오늘날의 쓰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학습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의 ‘문학/언어 기능’과 같은 도식에 입각하여 전공이 세분화되고 있지만, 이미 100년 전에 국어교육의 세부적 영역 구분을 넘어선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학을 활용한 글쓰기,’ 반대로 ‘기능적 문학의 산출’과 같은 통합적 국어교육 설계는 어렵긴 하지만 그토록 멀리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⁴³⁾ 수사론에서 확인된 쓰기 관련 지식들을 작문교육과 문학교육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화하여 위계적으로 배열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아울러 『신미사학』의 한국적 전개로서 『실지응용작문법』을 포함한 그 이후의 수사학 및 작문론 발전 양상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요망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②국어』.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서울: 한길사, 1986.
- 鈴木貞美(저)/김채수(역), 『일본의 문학개념』. 서울: 보고사, 2001.
- 배수찬,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 논설문 쓰기의 성립 환경과 문장 모델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유중호, 『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5.
- 이용주, 『국어교육의 반성과 개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이재선, 「개화기의 수사론: 그 이론형성과과정의 영향권」. 『한국근대문학연구』. 서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9.
- 이홍우, 『중보 교육과정탐구』. 서울: 박영사, 1992.
- 정우봉, 「연설과 토론을 통해 본 근대개몽기의 수사학」. 『고전문학연구』 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정우봉, 「근대개몽기 作文 教材에 대한 연구」. 『한문교육연구』 2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154~172쪽.
- 조동일, 「이광수」.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서울: 지식산업사, 1978, 331~342쪽.
- 최재학, 『實地應用作文法』. 京城: 徽文館, 1909.
- 최현섭(외), 『국어교육학개론』(제2중보판). 서울: 삼지원, 2005.
- 磯田光一(等編), 『新潮日本文學辭典』. 東京: 新潮社, 1988.
- 管谷広美, 『修辭及華文の研究』. 東京: 教育出版センター, 1978.
- 島村瀧太郎, 『(縮刷)新美辭學』. 東京: 早稲田大學, 1922.

43) ‘통합적 국어교육’이라는 용어의 문제에 대해 간단히 해명하고자 한다. 시마무라의 분류와 위계가 아무리 뛰어나게 재조직된다 한들, 그것이 오늘날의 글쓰기 교육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마무라의 분류 자체가 근대적 학문 분화의 결과인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통합적’이라 함은, 국어교육 내에서 작문을 기능으로 보는 경향을 지닌 이들이 문학적 글쓰기를 배척하는 태도, 혹은 그 반대의 태도를 넘어선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卷十』. 東京: 大修館書店, 1985.

Bain, Alexander, *English composition and rhetoric: a manual*. London: s.n., 1877.

Linda Flower/원진숙·황정현(역), 『글쓰기의 문제해결 전략』. 서울: 동문선, 1998.

Chambers, William and Robert Chambers, *CHAMBERS'S INFORMATION FOR THE PEOPLE VOLUME II*.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CO, 1867.

국문 요약

본 연구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 수사학의 도입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작문 내지 수사학 관련 용어들의 성립과 그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서구의 레토릭 개념은 동아시아에서 ‘善論,’ ‘能辯,’ ‘美辭’ 등으로 번역되다가 결국은 ‘수사(修辭)’로 정착하였는데, 이것은 ‘수사(修辭)’가 고전 한문에 용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기 행위를 가리키는 데에 적합한 동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근대적 레토릭은 19세기 이후의 지식 분업화로 인하여 내용학을 상실하고 단순히 말글활동을 잘 하는 것, 즉 기교적인 차원으로 축소되어 있었다. 19세기 말에 서양에서 동아시아로 유입된 레토릭 개념은 이러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것은 말글의 세련된 방법을 탐색했고, 말글의 규범성은 문법이라는 새로운 지식 체계에 위임하였다. 그러나 내용의 공소화를 피하기 위해 레토릭은 당대의 기교 중심 언어 담론인 문학과 제휴하였다. 이 시기에 나온 알렉산더 베인의 지정의론은 설명문, 논설문, 문예문의 작문중 삼분 이론을 정초한 동시에 문학의 독자적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레토릭의 구체적인 영역을 수립한 의의가 있다.

알렉산더 베인은 작문중의 이론과 함께 문체론을 성립시켜 레토릭이라는 분야의 내용으로 삼았다. 시마무라 호게츠의 『신미사학』은 이러한 서구의 레토릭 개념을 동아시아에 소개한 공적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에까지 작문의 이론적 장에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다. 시마무라에 의해 레토릭의 본질인 ‘꾸밈의 재주’가 구체적 지식으로 연역적 항목을 형성하였는데, 그것이 이른바 적극적 상채라고 하는 비유법과 수사 기교였다. 글쓰기를 내용과 형식으

로 나누고 내용의 꾸밈을 아이디어의 조직과 변형에 의해 설명하는 지적 체계는 관습적 글쓰기를 행하던 근대 이전에는 없던 것이었다.

근대 서양의 레토릭과 그 동아시아적 수용으로서 수사론은 오늘날 국어교육의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비교적 상당히 교육과정에 반영된 작문종의 이론을 제외한 문체의 이론, 수사론의 구체적 항목들이 위계적인 교육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 투고일 : 2007. 10. 10.

● 심사완료일 : 2007. 11. 28.

● 주제어(keyword) : 작문교육(writing education), 수사학/레토릭(rhetoric), 신미사학(*Sinbizigaku*: 『新美辭學』), 작문종(kinds of composition), 문체(style).